아빠가 목숨 바쳐 지킨 광주…딸은 몸짓으로 광주를 알린다

우리 가족의 5·18 그리고 나의 5월

〈3〉들불열사 김영철·딸 김연우씨

박기순·박관현 열사 등과 야학운동 주도
고문 후유증에 18년 간 정신병원 생활

"세상에 대한 미움 씻고 주체적 삶 살 것"
무용수로 활동… '나비연 예술단' 곧 창단
19일 5·18 포럼 '5월의 몸짓' 창작 무대

"아빠가 목숨을 바쳐 지킨 자유로운 세상에서 저 또한 자유롭게 춤추고 싶어요."

'들불열사' 고(故) 김영철(1948~1998)의 딸인 무용가 김연우(42·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는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고인은 5·18 민주화운동을 앞장서서 이끌다 고초를 겪었고 그 때 얻은 후유증으로 운명할 때까지 18년 여생의 대부분을 정신병원에서 보냈다. 투사로서 굽힐 줄 모르는 삶을 살았지만 연우씨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하기만 했던 '아빠'였다. 그 아픔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던 연우씨는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다.

고인 김영철은 박기순·박관현 열사 등과 함께 1978년 들불야학을 결성, 야학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피난민과 부랑자들이 모여 살던 광주시 광천동 시민아파트에 거주하며 주민들의 주거생활 전반을 개선하는 지역공동체 운동을 이끌었다.

5·18 당시에는 시민학생투쟁위원회 기획실장을 맡아 항쟁의 선봉에 섰다. 정부와 언론의 흑색선전에 맞서 투사회보를 만들어 시민에게 배포하고,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를 주도했다.

5월 27일 계엄군에 맞서 카빈 총을 들고 새벽까지 도청을 사수했다. 눈 앞에서 윤상원 열사의 죽음을 목격했고, 자신도 계엄군의 총탄 7발의 파편이 양쪽 다리에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계엄군에게 '간첩'으로 낙인찍힌 고인은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거짓 자백, 말실수를 하게 될까 고인은 28일 새벽 영창 화장실 벽 모서리에 머리를 10여차례 찧으며 자살을 기도했으나 헌병들에 저지당했다.

군법회의 1심에서 12년, 2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자랑스런 민주시민 광주시민 만세"를 외쳤다. 대법원 판결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투옥됐으며 이듬해 12월 성탄절 특사로 출소했다.

하지만 고인은 여생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자살 기도와 고문 여파로 오른쪽 뇌에 뇌수종이 생겨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던 것이다. 나주 정신병원, 영광 신하기독병원, 조선대병원을 오가며 16년 동안 투병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1998년 조선대병원에서 영면했다.

연우씨는 아버지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1980년 7월에 태어났다.

연우씨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픈 모습' 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면회나 외박을 나왔을 때 만나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연우씨는 "아버지는 가족 앞에서는 절대 아픈 티를 내지 않으셨다. 늘 웃고, 노래하고, 율동하는 제 모습에 장단 맞춰 박수를 쳐 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였다"며 "방 안에 혼자 계실 때는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하느님,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며 소리 죽여 울고 계셨다"고 떠올렸다.

연우씨는 사춘기 무렵 아버지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됐다. 학교에서 '너희 아빠는 정신병자'라며 놀림받아 울기도 했고, 아픈 내색 없이 마냥 사람 좋게 웃는 아버지에게 투정도 부렸다. 아버지를 아프게 한 군인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이웃들이 미울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항상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된다' '미움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셨죠. 어릴 땐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차츰 그 뜻을 알게 됐어요. 제가 평생 미움을 갖고, 피해 의식 속에서 살까봐 걱정해 주셨던 게 아닐까 깨닫게 된거죠."

연우씨는 아버지를 떠나보냈던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세상에 대한 미움을 씻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춤'을 추며 살기로 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굴레에 갇혀서, 피해의식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이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와 세상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우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용학원을 다니고, 광주여고와 광주여대 무용과를 졸업해 어엿한 무용가로 성장했다. 현재는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전통무용 지도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나비연 문화예술단을 창단할 예정이다.

아버지가 국가의 압제에 맞섰듯, 연우씨의 예술활동에서도 세상이 정해 놓은 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연우씨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순간 순간의 감정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이른바 '몸짓 예술'을 창작하고자 한다.

연우씨는 "지금의 무용은 정해진 형식과 순서에 매여있어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기 힘들다"며 "관객들 또한 무용을 어렵게 해석하지 않고, 자유로운 몸짓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 하나가 되는 무대를 꿈꾼다"고 눈을 반짝였다.

연우씨는 오는 19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 효천역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5·18 송암동·효천역 일원 양민학살 희생 영령 추모 문화제'에서 창작 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신이 해석한 1980년 5월의 모습을 '몸짓 예술'로 보여줄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 1997년 고등학교 2학년인 김연우씨가 투병 중인 아버지 김영철씨를 안아주고 있다.(왼쪽) 최근 광주시 북구에서 만난 김연우씨. /김진수 기자 jeans@·김연우씨 제공

4·3 제주학생 '5월' 체험

들불열사기념사업회, 16~17일

국가폭력으로 인해 4·3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지역 청소년들이 같은 아픔을 겪은 5·18민주화운동을 체험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15일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타 지역 청소년 초청 5·18캠프 10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제주지역 청소년 14명을 초청해 16일부터 1박 2일간 '5·18청소년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제주 청소년뿐만 아니라 4·3유족회 오임종 회장과 임원진(6명), 제주도교육청 정성중 교육국장과 민주시민교육과 직원(10여명)들이 함께 참여한다.

16일 오전10시 광주에 도착하면 전남대 민주길 방문을 시작으로 5·18사적지를 함께 답사한다. 오후에는 광산구 산정중학교에서 제주·광주 청소년간 교류활동을 갖고 국립 5·18묘역을 참배한다.

17일에는 광주 금남로를 비롯한 사적지를 돌아보고 오월 연극인 극단 토박이 공연 '오! 금남식당'을 관람할 예정이다.

임낙평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소년간 교류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옛 도청 5월 총탄 공개

18일~6월 30일 본관 2층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옛 전남도청 본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고 1980년 5월 당시의 총탄 흔적과 탄두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전시에서는 총탄에 맞은 책, 옛 전남도청 본관 서무과 벽면에서 적출한 탄두 등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전시실 내 특별영상실에서는 탄흔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옛 전남도청에서 기초조사를 진행해 M16 탄두 10개와 탄흔 의심 흔적 535개를 발견했다. 오는 7월까지 1차 정밀조사를 진행하며, 2023년 10월까지 2차 정밀조사를 한 뒤 탄흔을 보존 처리할 계획이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특별전을 마련했다"며 "탄두 자료들은 보존 처리해 영구 보존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도, 골프장 인공연못 안전 실태점검

안전시설 설치·위험성 고지 여부 등 중점 확인

전남도가 최근 골프장에서 인공연못(워터 해저드)의 관리 태만과 이용객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17일까지 골프장 인공연못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안전장비 관리상태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 39개소다. 도-시·군 합동점검반은 18홀 이상 정규홀 골프장 26개소 중 8개소를 표본점검하고, 나머지 31개소는 시·군이 자체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인공연못 주변 구명튜브·구조용 장비 비치 ▲안전표지판·안전펜스·조경시설 설치 ▲경기 시작 전 인공연못 위험성 고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개선사항은 지속해서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5·18 3개 단체, 공법단체 전환 완료

5·18민주화운동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전환이 완료됐다.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월 공포된 지 1년 4개월 여만이다.

15일 광주지방보훈청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장을 선출, 보훈처의 승인을 받고 지난 13일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사단법인이었던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가 해산되고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지난 3월 2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지난 3월 4일)가 모두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유족회 회장에는 박해숙씨가 선출됐고, 부상자회는 황일봉씨, 공로자회는 이종수씨가 각각 회장에 당선됐다. 박해숙 회장은 "유족들의 복지에 힘쓰고 회원들간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법단체 출범이 완료되면서 기존 광주시로부터 지원받던 기념사업 보조비가 아닌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